

# 100원으로 도서관을 가져라!

북토피아 · SK(주) OK캐쉬백 '100포인트 도서관' 오픈

북토피아(www.booktopia.com, 공동대표 김혜경, 오재혁)와 SK주식회사(www.skcorp.com, 대표 신현철)는 공동으로 'OK캐쉬백' (www.okcashbag.com) 사이트에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인 '100포인트 도서관'을 오픈했다. '100포인트 도서관'이란 OK캐쉬백 회원들이 100포인트(100원 상당)를 결제하면 하루 동안 OK캐쉬백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현재 OK캐쉬백 사이트에는 공지영 씨의 베스트셀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비롯해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대표작 100편, 어린이용 플래시동화 등 북토피아가 제공하는 약 200여 권의 전자책이 서비스되고 있다.

OK캐쉬백 '100포인트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OK캐쉬백 사이트 접속 → 엔터테인먼트 → 도서 → 100포인트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된다. 한편 북토피아와 SK(주)는 OK캐쉬백의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향후 서비스하는 전자책을 무렵, 판타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OK캐쉬백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을 PC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이용 가능한 유비쿼터스 전자책 서비스(U-Book)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자료 제공 : 북토피아(www.booktopia.com)



## 19세기 말 개화기 조선

리심(梨心)은 19세기 말 개화기 조선의 실존 인물로 프랑스 외교관과 사랑에 빠졌던 궁중 무희다. 10년 동안 작품에 임할 때마다 치밀한 고증과 방대한 자료 조사를 빠뜨리지 않았던 저자는 이번에도 조선 시대 한양을 답사하듯 19세기 파리 거리에서 리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자녀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다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명상을 얘기한다. 그리고 명상이 아직은 낯선 부모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상의 원리와 효과,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 가장 중요한 것

'뜨거운 관심'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자기계발서. 소중한 사람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뜨거운 관심'을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직장인 이선우를 통해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 롤랜즈의 1년 간의 자연생활을 담은 수기. 캐시(cache)라는 말은 숲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은닉처를 말한다. 저자는 우연히 발견한 늘 살고 싶었던 곳, 자신의 인생에 은닉처가 되어준 숲 속 호수에 이 이름을 붙여 주었다. 캐시 호수, 또는 당신의 이상향이 롤랜즈의 아름답고 소박한 글과, 헨리 케인의 정교한 그림과 함께 이 책에 담겨있다. 딱딱하고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 가치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평온한 생활과 사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여러 사상가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하고 비교하는 책. 유교와 힌두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등의 고대 사상을 비롯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 마르크스, 프로이트, 사르트르에 이르는 사상가들의 핵심 주장을 짧은 분량으로 요약해 놓았으며, 에드워드 O. 윌슨과 진화생물학을 비롯해 뒤르켐, 스키너, 니콜라스 틴버겐, 로렌츠, 촘스키 등의 주장을 포괄적으로 소개한 진화론에 대한 장도 새로 추가되었다.



여성이 여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겨 보게 하는 23편의 글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여행 안내서. 내가 만든 내 안의 경계, 사회와 제도가 쳐 놓은 경계를 넘나들며 여행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여행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토록 고통을 겪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보일까? 과연 행운이나 불운, 우연이 있는 것일까? 저자는 우리 인생에 운명이나 숙명, 섭리는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인생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생각의 자력'이다.



20년 이상 리더십을 연구한 저자들을 비롯해 컨설팅, 심리 분석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12명의 연구원들이 4년에 걸쳐 유명 기업에서 활동하는 약 700명의 리더들과 함께 생활하며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리더들과 팀원들이 함께 전략, 계획, 비전을 세우고 토론하는 현장을 관찰하면서 저자들이 발견한 리더십의 실체를 공개한다.



시대가 산업화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변한 만큼, 이제는 리더십의 패러다임도 제왕적 리더십이나 관리자형 리더십에서 CEO형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정치, 경제, 교육계에서 리더라고 자처하는 대표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나아가 거시적 안목으로 리더십에 대해 통찰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리더상을 제시한다.



'대한'이라는 국호를 단 국가가 세 번에 걸쳐 세워졌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면, 최초로 '대한'을 표방한 '대한제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의미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 후 60여 년간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의 '원흉'처럼 본 것은 더 나은 '대한'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부정의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후일 태종무열왕이 된 김춘추를 본격 파헤친 역사서. '김춘추의 집권과정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쓴 저자가 정확한 사료를 중심으로 치밀한 묘사와 서술로 완성했다. 김춘추를 전방위 압박외교를 제대로 보여준 승부사로 파악하면서 김춘추에 관해 잘못 알려진 것들과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해 보여준다.



포토저널리즘의 기수,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의 이야기. 이 책은 피가 튀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주요한 역사의 현장에서 불후의 이미지들을 건져 올려 현대사의 생생한 기록으로 남긴 로버트 카파의 열정적이고 모험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흥미롭게 펼쳐 보인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스무 살 청년들을 위한 경제학이다. 분배, 가치, 생존, 정부, 효용, 기업, 실업이라는 7개의 커다란 주제를 설정하고 그 각 주제를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편안하고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실크로드를 4년간 단신으로 걸어서 여행한 후 《나는 걷는다》를 출간해 수많은 독자들에게 '여행이란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과정'임을 보여준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이번에는 서툰 사진작가가 되어 다시 한번 실크로드에 도전한다.